

HERALD AUCTION
GWANGGYO CENTER

아트
경매

Winter feast

11.30
—
12.06

Winter feast

참여작가

강해찬 Kang Haechan

나광호 Na Kwangho

노한솔 Noh Hansol

무아리 MooA lee

박지수 Park Jisoo

신선우 Xin Sunwoo

양승원 Yang Seungwon

연호석 Yeon Hosuk

이 소 Lee So

임준영 Lim Juneyoung

정정호 Jung Jungho

정유종 Jung Ujong

조민아 Cho Minah

최규연 Choi Kyuyun

키미작 Kimi Jaak



녹색 장막

캔버스에 아크릴
53×53cm
2023



밤 무지개_2

캔버스에 아크릴
53×53cm
2020

강해찬 b.1995 Kang Haechan

개인전

2022 물빛 대기, 갤러리 도스, 서울
2022 Sunlight Punch, 유영공간, 서울

단체전

2023 성남의 발견전, 성남 큐브 미술관, 성남
2023 아트 경기 UP 미술장터, 갤러리 끼, 서울
2023 아트랩 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서울
2023 드로잉그로잉, 탈영역우정국, 서울

나는 보이지 않는 감각적인 대상들을
회화로 표현하는 것을 탐구해오고 있다.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기, 빛, 물 등을
소재로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대기의 요소,
이를 통해 체화된 감각에 집중하여 일상의 시간간을
감성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비가시적인 존재들이
음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상상할 때면
어쩌면 우리가 빛과 대기가 만든 물결 속을
유영하는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작업으로 연결되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공기의 결은 대기 중의 물방울과 만나 반짝이거나
서로 충돌하고 흘러가며 빈 공간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주변을 휘감고 있을 것이다.

나광호 b.1979

Na Kwangho

개인전

2023 강원도감(江原圖鑑), OCI 미술관, 서울
 2023 생활도감(生活圖鑑), 김홍도미술관, 안산
 2022 福嬾圖(복음도), 이응노의집, 홍성
 2022 명화를 삼킨 아이들,
 양평군립미술관 컨테이너 아트랩, 양평

단체전

2023 방향감각,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22 일상_Layer, 뮤지엄 SAN, 원주
 2022 밤을 넘는 아이들,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2022 무용의 용(無用的 用), 오산시립미술관, 오산



접시꽃

아르쉬 종이에 잉크, 목판화
 100×80cm
 2023



천인국

아르쉬 종이에 잉크, 목판화
 90×106cm
 2023

자연과 식물의 모습을 판화로 찍고

‘도감’과 ‘강목’의 형식을 빌어

‘역행과 불합리한 도감’을 제작하고

식물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 삶, 관점,

이야기, 구전, 설화, 전설을 식물에 담아 설명하는 것이

내 작업이 위치하고자 하는 좌표이자 층위이길 원한다.

입장과 경험에 따라 각자의 현실을 바라보고

각자의 세계를 구축한 흔하디흔한 식물을 새로 발견하거나

걸음을 멈추고 오랜 시간 머물며

밀도 높은 오랜 시간 제작된 작품을 통해

느리게 관찰하고 오랜 시간 머무르며 보게 할 것이다.

노한솔 b.1991

Noh Hansol

개인전

2023 Mr.Teddy, 공간형, 서울
 2022 동세근상 :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는 연습, 별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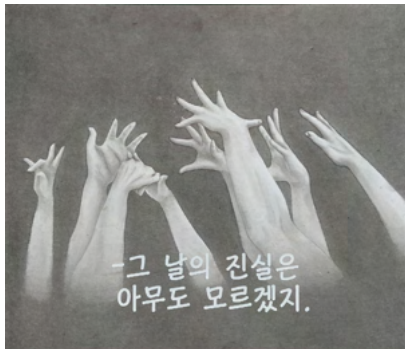
단체전

2023 自我 아래 기억, 自我 위 꿈,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2023 이상한 당신의 세계, 우민아트센터, 청주
 2023 포스트모던 어린이 1,2부,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2023 더프리뷰성수, 에스팩토리, 서울
 2022 다시 그린 세계: 한국화의 단절과 연속,
 일민미술관, 서울



상추트리

장지에 먹과 스프레이
 42×29.7cm
 2022



그 날의 진실은 아무도 모르겠지

장지에 먹과 스프레이
 45×53cm
 2022

정의된 것들과 그리고 그 사이의 틈,
 드러나지 않고, 탈락하고, 잊혀진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동양화 매체를 중심으로 회화 작업을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정된 의미와 뜻, 상징과 같이
 정해져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인지하는 과정
 [지내오며 학습해온 것]과 경험 속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언어와 연결하여 작업하고 있다.

타인이 무언가를 정의 내릴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과정의 서사들은 삭제되고 어떤 부분만 남아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생겼으며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꽃이 피었습니다 7-1b

나무 패널에 세라믹
91×91cm
2023



My Utopia 18a

나무 패널에 세라믹
36×36cm
2023

무아리 b.1981 MooA lee

개인전

2023 나의 유토피아, 갤러리여울, 대구
2023 나의 유토피아, 스페이스컬, 서울
2022 작가공모당선,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서울

단체전

2023 일러산책, 유나이트드갤러리, 서울
2023 아트 경기 UP 미술장터, 갤러리 끼, 서울
2023 기획공모 선정작가전, 써포먼트갤러리, 서울
2023 Mezclarse, 아트스페이스이색, 서울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정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나’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무아(無我)’라 할 수 있다.
‘무아(無我)’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욕망과 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더러운 마음을 닦아 순수하고 깨끗한 세계를
지향하는 마음을 담으며 그 세계를 표현하거나
또는 버려야 할 마음인 ‘감정의 조각’들로
변화하는 장면을 표현한다.
내 작업으로 인해 잠시나마 천국, 정토, 행복한 세상에서
함께하기를 바란다.

박지수 b.1990

Park Jisoo

개인전

2023 존재적 비움의 풍경, 갤러리 NY, 서울
 2020 Empty Landscapes, 유중아트센터, 서울
 2019 Empty Forest, Gallery NY, 서울
 2019 Poetic Scenery, 갤러리 너트, 서울

단체전

2023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아시아 현대미술
 청년작가 선정작가전, 세종미술관, 서울
 2023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 '자유로이 노닐다',
 김홍도미술관, 안산
 2023 아트경기 UP 미술장터, 갤러리 끼, 서울
 2023 일상의 풍경: 경기미술창고 특별기획전,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아르헨티나



Spring(샘)

종이에 유채
 72.7×90.9cm
 2023



숲, 섬_한 낮의 검은 독백

한지에 유채
 91×116.8cm
 2022

화면은 흐르며 동시에 비워지는 현재의 시간의 풍경이다.

생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부유하는 실존만이 존재한다.

변화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자연의 실존적 이미지를 포착하고 재현하는 회화 작업은

각자의 방식으로 영위하는 자연적 대상의

일의적인 가치를 내세워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저마다 지니는 잠재된 가능성을 드러낸다.

작업은 존재에 대해 지나간 현재들의 시간 속에서 정의한 장면들을

담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고백한 과정이다.

신선우 b.1987

Xin Sunwoo

개인전

2022 환상특급 시즌 4 : 블루, 볼케이노, 썸머,
OCI미술관, 서울

2022 Blow-up, 플레이스 막1, 서울

2022 파타버스, 갤러리 PA, 청주

2020 세레머니, 아트포럼 리, 부천

단체전

2023 다파티스트(DAFARTIST) 프리뷰,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23 확장자,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23 = (equal, 이꼬르), 달천예술창작공간, 대구

2023 Open up,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솔로샷

캔버스에 유채
72.7×60.6cm
2023



솔로샷

캔버스에 유채
72.7×60.6cm
2023

그림 속에 가상의 민족 국가의 의식(ritual),
퍼포먼스(performance)를 보여주고,
과거와 현재 시간대가 뒤섞이는 공간,
그리고 익명의 인물을 병치시킴으로써,
오늘날의 다원적 가치와 현상을
질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양승원 b.1984

Yang Seungwon

개인전

2022 덮어쓰기, 엔에이, 서울
 2021 글림스, 서울시립미술관 세마창고, 서울
 2019 커버드 모멘트, 하이트컬렉션, 서울
 2018 Ctrl+c, Ctrl+v, 송은아트큐브, 서울

단체전

2023 공중정원,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2023 다중시선, 금호미술관, 서울
 2023 다시, 자연에게 보내는 편지,
 문화역서울284, 서울
 2022 전시후도, 웨스, 서울



덮어쓰기 #1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90×70cm
 2022



덮어쓰기 #15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90×70cm
 2022

주로 '사진', '디지털 이미지',
 '구조물' 등을 활용하여 개인이 마주한 상황이나 풍경을
 인식하는 과정, 사회의 감춰진 부분을 드러내며
 당연시 여겨지는 인식의 과정에 균열을 가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미지가 어떤 것이 진실이고 허구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이미지의 순환이 가속화되는 지금의 시공간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판단하는 그 과정 자체에
 의문을 갖고 작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이미지와 형상 그리고 이것을 보는 우리 사이의
 변해가는 관계상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탐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연호석 b.1996

Yeon Hosuk

개인전

2022 숲 속에 빛, 밀알미술관, 서울
 2021 노래하는 나무들, 서리풀 휴 갤러리, 서울
 2020 연호석 개인전, 갤러리활, 서울
 2019 Joy @ Delight, 갤러리활,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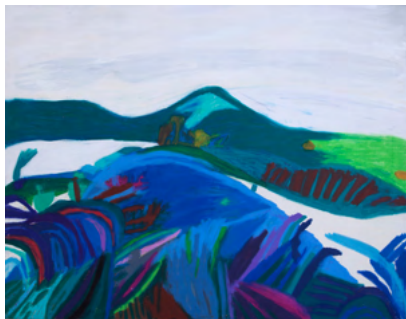
단체전

2023 제6회 오버더레인보우,
 KT&G 상상마당, 서울, 춘천, 부산
 2023 페인터스 드림, 강남구민회관, 서울
 2023 서리풀 청년아트마켓,
 서리풀 청년아트 갤러리, 서울
 2023 A+ festival 바람난 그림전, 청와대 헬기장, 서울



Lively 1

캔버스에 아크릴과 오일파스텔
 116.5×91cm
 2023



들산

캔버스에 아크릴과 오일파스텔
 91×116.5cm
 2019

그림을 그릴 때 작가는 대상이 어떠하든지

늘 주저함 없이 단번에 또한 빠르게 그림을 그려낸다.

사실적인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기보다

대상으로부터 그때마다 느끼는 작가만의

독특하고도 선택적인 느낌을 캔버스에 이미지화 시킨다.

복잡한 사물을 선과 면으로 단순화하고

화려하고 세련된 색감을 입힌다.

주로 자연물을 그리기 좋아하는데 스케치 없이

붓으로 형태를 채워가며 울동감 있는 선으로 테두리를 장식한다.

아크릴 물감 위에 오일 파스텔을 덧입히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 재료를 적절히 조합해

심미성 있게 작품을 완성한다.



Keep-in-Line! 2

실크스크린, 종이 콜라주
41.5×38.5cm
2022



City of Pansy 2

실크스크린, 종이 콜라주
21×30cm
2023

이소 b.1991

Lee so

개인전

2023 CIYK OF CMYK, 예술공간 의식주, 서울
2019 꽃접시, 예술공간 서:로, 서울

단체전

2023 Re:boot 아트벙커 재개관전, 아트벙커, 서울
2023 이주, 예술공간 의식주, 서울
2022 10월의 이소 ^-^, ^-^, ^-^,
영등포 시장역 라운지 사이, 서울
2022 한평의 작업실, 노원문화재단 선정작가전, 서울
2021 청년예술가 s 선정작가전, 아트벙커 B39,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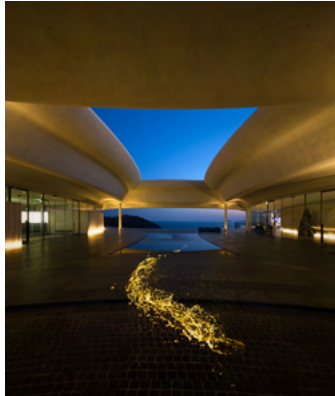
내가 바라보는 도시는
다양한 계획의 기능과 의도에 따라
어려 모듈로 나누어져 있다.
가령 도시의 보편적 풍경을 만들어내는 꽃과 나무,
근린공원의 울타리나 보도블록처럼
작은 조각들을 수집하고 관찰한다.

도시- 디지털 세계-아날로그 출력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내가 바라보는 도시의 문법과 현대 문명사회를
팬지꽃의 은은한 미소로 빗대어 표현한다.



흐르는 물처럼 01

사진 종이에 잉크,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02×75cm (edition of 5)
2008



흐르는 물처럼 22

사진 종이에 잉크,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20×100.5cm (edition of 3)
2013

임준영 b.1976 Lim Juneyoung

개인전

2022 그 너머에, 늘, 금호미술관, 서울
2021 늘, 그러하듯, BMW 포토 스페이스, 부산
2016 서울 혁신파크를 탐험하다,
서울시립미술관 SeMA 창고, 서울
2015 ARCHITECTURAL PERSPECTIVE,
소울아트스페이스, 부산

단체전

2023 보이지 않는 도시들,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청주
2021 안녕! 오늘 서울, 서울하우징랩, 서울
2017 Two different perspective,
아주그룹 아트스페이스, 서울

나는 매일 색다른 공간을 탐험하듯 어딘가로 빠져든다.
그곳은 마치 새로워 보이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한다.
무언가에 홀린 듯 바라보게 되는 공간에 어우러진 사람들은
매일 샘솟는 물처럼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게 된다.

건조하고 메마른 도시의 이미지를 물을 이용하여 생명력,
즉 거대 도시에 파묻히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력과 활동력을 보여주며, 도시와 물이라는
두 요소의 조화를 통해 생명의 연속성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Peripheral Scene_Blossom #1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60×40cm (edition of 7)
2021



Peripheral Scene_Blue Day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60×40cm (edition of 7)
2021

정정호 b.1981 Jung Jungho

개인전

2022 매그놀리아, BMW 포토스페이스, 부산
2022 부처와 마고할미,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20 Beside, 라이카 스토어 청담, 서울
2019 Leica x 정정호 '쿠바',
현대카드 디자인라이브러리, 서울

단체전

2023 당신에게 말을 거는 이유,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2023 물의 왕: 동학과 화엄의 두물머리, 자하미술관, 서울
2022 것들, 흔적 기억,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청주
2022 정착세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일명 '잡초'라 불리는 들풀, 들꽃을 중심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눈여겨보지 않았던
생태의 일부를 기록하고자 한다.

원하지 않는 곳에 자라는 식물, 방해되는 풀,
이름도 모르는 잡다한 풀이라고 풀이되는 잡초는
사회적 가치 선택에 의해 배제된 채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어쩌면 그 모습은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았다.
어두운 배경에 한 줄기 드리워진 조명으로
이제껏 한 번도 제대로 빛을 받지 못했으나
사회 안에 존재하는, 숨은 존재들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비추고자 한다.

정유종 b.1996

Jung Ujong



Pink Block Stool

벨크로, 합판
70×70.5×50(h)cm
2023

2023 The Art Plaza : 을지미로 by IBK,
기업은행 본사 지하 아케이드, 서울
2023 The Void- Odyssey, 키르 서울, 서울
2023 CRAFT: Form & Pop, 송원아트센터, 서울
2023 사물들의 우주, 갤러리 민정, 서울
2023 Not Just Furniture,
신세계타임스퀘어 리빙관, 서울
2022 HYBRID: CRAFT_결에 두고싶은 공예,
코사이어티, 서울
2022 논-논-논, 안팎 스페이스, 서울



Maple[Yellow] Block Stool

벨크로, 메이플, 합판
43×33.5×33.5(h)cm
2023

따분한 목공 작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우연히 가방에 붙어있는 벨크로를 발견했다.
이를 활용하여 가구를 제작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라는 상상을 했다.
그때의 상상으로 지금 나의 작업은 시작이 되었다.

혼자 걷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 이런 일상의 순간들은
가장 편안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일상의 흔한 형태와 패턴들은 무심한 듯 질게 나의 영감이 된다.
나의 엉뚱한 상상력과 즉흥적인 삶의 태도에서
관찰되는 일상의 영감은, 새로운 재미를 더해
또 다른 시도와 아이디어로 이어진다.



생각의 무게
장지에 채색, 콜라주
24×18cm
2023



어지러운 기호
장지에 채색, 콜라주
24×18cm
2023

조민아 b.1986 Cho Minah

개인전

2022 ○○의 한가운데, 갤러리도스, 서울
2022 흔들리는 사이사이, 갤러리밍, 서울
2021 흩어진 나날, 아트스페이스보안2, 서울
2020 금호영아티스트 - 빼기, 나누기 그리고 다시 더하기,
금호미술관, 서울
2018 소란스러운 적막, OCI미술관, 서울

단체전

2023 UNBOXING PROJECT2: Portable Gallery,
뉴스프링프로젝트, 서울
2023 부드러운 인생, 쉼미술관, 청주
2023 위로하는 정신, 이한열기념관, 서울

최근 나의 작업의 관심사는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
공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들의 에너지와 감정들이다.

타인과의 관계 맺기, 동식물을 가까이 두는 것과 같이
불완전한 소통과 많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 속에서 만들어내는 일상은
익숙하지만 낯설게 다가오기도 한다.

함께하고 또한 고립되는 상황을 다중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내며
그것이 우화적으로 보일 수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움직이는 관찰자

캔버스에 유채
60.6×72.7cm
2022



기다리는 풍경

캔버스에 유채
53×45.5cm
2022

최규연 b.1990 Choi Kyuyun

개인전

2022 Roadside, 갤러리인, 서울
2021 깜빡: Here and There, 상업화랑, 서울
2020 생각하는 원숭이, 매홀창작스튜디오, 수원
2018 단.조.로.이, 예술공간 봄, 수원

단체전

2022 어반브레이크, 코엑스, 서울
2021 연희아트페어 Call for Collectors, 서울
2020 Multi-Hive 결과보고전, 매홀창작스튜디오, 수원
2019 짠 짓 드로잉전, 매홀창작스튜디오, 수원

영화 관람, 인스타 구경, 책 읽기,
버스 창밖 풍경 살피기,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관찰하기,
길 고양이 눈치 보기 같이
세상에는 흥미롭고 진지한 풍경들로 가득하다.

나는 매일 하는 시각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다.
주변에 널려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그림의 소재가 된다.
일상의 사물과 풍경을 회화 언어로 재-구현한다.

작업 과정은 그림이 될 대상을
주변에서 관찰하고 찾으면서 시작한다.
여기에 적당한 무의식과 직관, 상상력과
정서적 재현을 섞어 그림을 완성한다.



Vacance Hula

나무 패널에 오일파스텔
97×130.2cm
2023



Scene #15. Forrest Gump

나무 패널에 오일파스텔
72.7×60.6cm
2023

키미작 b.1976 Kimi Jaak

개인전

2023 Being Being, PFS갤러리, 서울
2023 SCENE #172, MGFS100 갤러리, 서울
2023 NEXT EPISODE, 갤러리 히든스페이스, 대구
2023 ARE YOU READY, 아트 스페이스 W, 서울

단체전

2023 ARI GROUND LONDON, 사치 갤러리, 런던
2023 Art Vacance, 대구 신세계 백화점, 대구
2023 ART-IST, 현대백화점 목동점, 서울
2023 Atmosphere, 김리아갤러리, 서울

2012년 하와이 이주 후 이방인의
시선으로 본 일상의 기억과 감정을 그린다.
우리가 늘 보고, 느끼고, 겪는 일상이 아무렇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길란 결코 쉽지 않다.
한 발짝 뒤로하면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
또 다른 낯설이 보인다는 작가.
색채가 대비된 화면은 사실적이기보다는 초현실적이고,
내용에서도 현실 너머의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듯하다.

발행처 (주)헤럴드옥션
주소 수원시 영통구 광고호수공원로 277
TEL 02-3210-2255
홈페이지 www.artday.co.kr

디자인 김수아
인쇄 design salt

주최 · 주관



